

과학전문채널 활성화 방안 연구

The Plan of Activation for Science Channel

김희경
미디어전략연구소

Hee-Kyung Kim(fourtvir@gmail.com)

요약

국내 유일의 과학전문채널인 'YTN사이언스 TV'는 과학 대중화라는 그간의 성과와 의의에도 불구하고 시청률 저조와 채널 접근의 한계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과학전문채널의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 관점에서 해외 유사채널과 비교함으로써 바람직한 대안과 발전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공식성 구현과 상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성공적인 해외 채널 진출과 자국민에 대한 과학교육에 이바지하고 있는 BBC Knowledge의 운영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국내 과학전문채널의 활성화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중심어 : | 과학전문채널 | YTN 사이언스 | BBC Knowledge | CCTV-10 | 일본 사이언스 채널 |

Abstract

'YTN Science TV' that is the only one specializing in science channel in domestic have struggled low ratings and the restricted access in spite of the performance and significance that it has contributed to the population of science. This study will seek alternatives and development challenges through the comparison with the similar channel of international for the activation of the science channel. Accordingly, this study is to review the BBC knowledge channel that have contributed the successful overseas expansion and the education for the people of its country in pursuing commercial and public interest. This study will provide significant in the activation of the science channel in domestic through review of such cases.

■ keyword : | Science Channel | YTN Science | BBC Knowledge | CCTV-10 | Japan Science Channel |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985년 영국의 왕립협회(Royal Society)가 특별위원회를 조직해서 발간한 보고서인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1] 에서 시작된 <PUS>는 대중이 처해있는 개인적인 상황과 대중의 능동성을 강조한 새로운 형태의 '과학대중화' 개념을 제안하며, 미디어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개념에 가장 충실하면서 대중의 과학적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매체가 바로 과학 전문 방송 혹은 과학전문프로그램이다[2].

국내의 경우, 과학프로그램은 지상파방송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작되어 왔으나 제작비와 시청률의 문제로 현재는 <KBS1TV> 의 '과학카페' 정도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방학 특집이나 기획특집 등으로 일시적인 편성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과학프로그램을 가

장 많이 방영하고 있는 EBS는 광범위한 문화예술지식 채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 분야만을 전문적으로 편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채널 단위로 24시간 과학기술 및 관련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사업자는 'YTN사이언스'¹⁾가 유일하다.

이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과학채널은 과학 프로그램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과학 프로그램이란 장르를 떠나 다루는 소재가 과학과 다분히 연관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폭넓게 의미한다[3]. 보통의 과학방송은 제작의도에 과학적 지식을 전달하려는 의지가 분명하지만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과학적 내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오히려 일반지식에 관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가 있으며, 반면 과학적 지식의 전달 의도는 없으나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으므로 과학 프로그램과 비과학 프로그램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모호한 측면이 있다[3].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학방송 채널인 'YTN사이언스'는 과학기술 관련 프로그램을 24시간 편성, 국민들이 과학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보와 재미를 동시에 전달하는 과학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편성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과학적 내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종합 편성하는 포괄적 과학방송의 성격을 띠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YTN사이언스'는 채널 인지도 저조, 시청률 저조, 콘텐츠 부족, 자체 제작비율 확대를 위한 재원 부족 등의 한계[4]를 노출하고 있다. 특히 재원 부족의 한계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과 YTN의 자체대용자금이라는 매칭펀드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다시 채널 인지도의 저하로 이어져 최근 개국한 종편 등으로 인해 채널 접근성은 꾸준히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YTN 사이언스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재정적 어려움에 기인한다는 전제 하에 해외 유사채널과 재정적 관점에서 비교·분석하고자 한

다. 'YTN사이언스'의 방송 목표와 부합되는 공익적 목표를 수행하는 대부분의 해외 유사채널이 정부의 지원과 공영방송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재정적 안정성에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해외 유사채널은 영국의 BBC Knowledge 채널은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BBC Knowledge는 공적자금인 수신료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채널로서 공익성을 최우선의 목표로 한다는 점과 일정 정도의 상업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YTN사이언스'의 직접 비교대상으로 채택되었다.²⁾ 이외에 일본의 사이언스 채널과 중국의 CCTV-10가 정부에 의해 운영되어 공익성을 구현하고, 안정적인 재원 구조를 가진다는 점에서 채택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Discovery 채널과 National Geographic 채널은 상업채널이라는 점에서 제외되었다.

2. YTN 사이언스 운영 현황

YTN 사이언스는 2007년 1월 교육과학기술부(구 과학기술부, 이하 교과부)가 우선 협상자 대상으로 YTN을 선정하면서 본격적인 개국 준비를 하였고, 교과부와 YTN의 공식적인 사업협약체결을 거쳐 2007년 9월 개국했다. 방송분야는 기초과학, 기상 및 재해정보, 기계전자, 생명과학, 우주항공기술, 정보통신기술 등이며, 편성의 원칙은 1) 쉽고(Easy), 재미있고(Fun), 유익한(Useful) 과학채널, 2) 국내외 첨단 과학기술 동향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생생한 정보채널 3) 과학문화 확산운동의 첨병 역할을 담당하는 과학문화 전문채널, 4)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는 국가경쟁력 강화채널을 모토로 하고 있다. 2008년부터 'BBCKnowledge'를 매일 저녁 8시부터 두 시간 동안 사이언스TV에 편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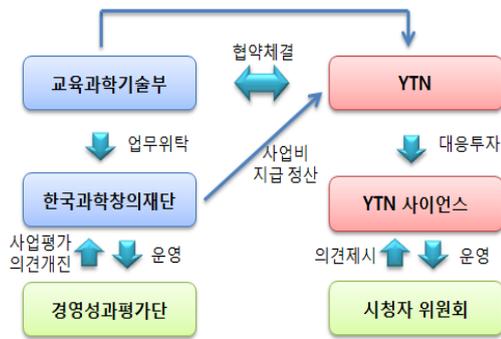
교과부가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창의재단)에 예산을 위탁하면 창의재단이 YTN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가 형성되고 있으며, 예산을 관리하고 경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창의재단이 경영성과평가단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교과부의 지원규모는 국회예산심의 확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프로그램 확보에

1) 사명은 2010년 11월, '사이언스TV'에서 'YTN사이언스'로 개칭된 바 있다. 시기에 관계없이 이후의 채널명은 'YTN사이언스'로 통일한다.

2) 교과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공적자금은 아니지만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공익적 목표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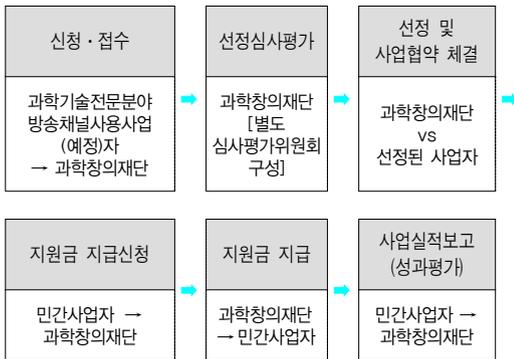
소요되는 직접제작 및 구매비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행정지원인력의 내부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운영비 및 장비구매 등의 자본적 경비로는 집행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로 인해 매칭펀드가 필수적이고, 현재 YTN이 나머지 경비에 대한 자체대응자금을 조성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교과부의 지원 금액은 평균 40~50억 수준으로 국내 PP의 평균 제작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제작 환경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4].



출처:[4]

그림 1. 사이언스TV 사업구조



출처 : [5]

그림 2. 공모절차 및 정부지원금 지급 과정

매칭펀드 형식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교과부는 3년마다 1년 단위 연장승인 방식으로 사업자 공모를 통해 과학전문채널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선정방식은 정부지원금의 관리와 사업평가를 객관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과학전문채널사업자는 사업자이기 전에 방송사업자로서 채널

운영의 일관성과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안정된 제작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공모 방식은 채널 운영의 안정성과 일관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제작환경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1,300여만 가구에 과학전문 프로그램(전체 프로그램의 90% 이상)을 편성·서비스하고 있으며, 시청자들의 다양한 채널접근성에 맞게 케이블 플랫폼뿐만 아니라 위성(KT SkyLife 406번), IPTV(olleh KT:456번, SK broadband : 452번)를 통해서 24시간 시청할 수 있다(한국과학창의재단홈페이지 참조). 그러나 아래 [표 1]의 채널 보급현황을 보면 '09년도 대비해서 '10년도 케이블 플랫폼의 가입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 방송법상 공익채널 편성원칙으로 인해 가입자가 줄어들면서 채널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

표 1. 플랫폼별 채널 보급현황

단위: 만가구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누계
합계	289	843	1,302	1,049	1,336	1,336
케이블TV	69	623	1,067	622	740	740
위성TV	220	220	235	262	300	300
IPTV	-	-	-	165	296	296

출처 : [7]

‘YTN사이언스’ 채널 운영 현황을 살펴볼 결과, 가장 크게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는 매칭펀드 형식의 예산자금의 규모가 과학 장르와 같은 특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충분한 정도의 금액이 아니라는 점과 현재와 같은 제공모 방식으로 인한 안정된 채널 운영의 문제점, 방송법상 공익채널 전송 기준으로 인한 채널 접근도 하락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3. 기존연구 고찰

과학전문 채널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저널리즘적 관점과 정책 및 제도 연구로 이분화되어 진행되어 왔다. 저널리즘 연구는 과학전문 채널 뿐만 아니라 과학뉴스와

과학 토픽을 전달하는 언론의 자세와 태도에 비판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즉 과학전문 기자의 부재와 편집실에 과학부서가 없는 국내 과학보도의 구조적 한계로 인한 과학 보도내용의 문제점을 저널리즘의 시각에서 분석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과학보도의 경향에 대한 연구[8]와 과학보도의 프레임 연구[9]가 수행되었다. 생명과학과 같은 개별 분야 또는 토픽에 대한 보도 분석[10][11]과 황우석 보도에 대한 분석[12] 등이 대표적이다. 권상희·김위근·박성철[13]은 과학뉴스의 영역과 유형, 제한적 속성 등 과학뉴스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고찰한 바 있다. 과학저널리즘의 전반적인 연구경향을 다룬 연구는 김영욱·박성철[14]의 연구가 대표적인데, 이들은 과학 저널리즘이 저널리즘의 전문적인 영역으로서 과학저널리즘의 정의와 기능, 윤리, 한국 과학보도의 취재 시스템과 보도 현황을 분석한 바 있다. 또한 과학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과학자가 본 한국 과학보도의 문제점, 과학기자가 현장에서 관찰한 미국 과학보도의 현황을 소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과학전문 방송이 대두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로서 대부분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과학관련 언론보도 태도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과학전문채널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라고 보기는 어렵다. 본격적으로 과학전문채널과 관련된 연구가 시작된 것은 유료방송을 통해 과학전문채널을 런칭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면서 산업적인 관점에서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연구가 다수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4].

김영석[5]은 과학전문방송을 이용한 대국민 홍보전략 방안을 연구했는데, 사이언스TV의 수요자 인식과 평가를 분석하여 사이언스TV의 개선점을 분석한 바 있다. 또한 과학채널 홍보전략을 위해 국가별 과학관련 채널 운영을 고찰했는데, 미국과 영국, 일본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유형과 종류를 검토했다. 이와 유사한 정책 연구로 박은희·심미선·황성연[4]의 연구는 과학전문채널인 사이언스TV의 성과를 중심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사이언스TV의 성과로 시청률에 입각한 시청성과 분석과 유료방송 런칭 및 공익채널 선정과 관련된 플랫폼 성과 분석, 그리고 사이언스TV의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평가 분석과 프로그

램에 대한 수용자 평가 분석, 재무성과 분석,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한 성과 분석 등 입체적으로 사이언스TV의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정책 연구는 방송산업과 시장 질서에서 과학전문 채널과 같은 독특하고 공적인 영역의 채널이 긍정적인 효과와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널 선호도와 접근성에서 밀려나 소외된 채널로 인지되는 배경과 원인을 살펴보는 데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과학전문 채널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결과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과학전문 채널의 활성화 원인과 공적 영역으로서의 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재정적 관점에서 해외 과학전문채널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상업적인 영역과 공익적인 영역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는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상업성과 공익성을 절충하는 모델로 오랫동안 전 세계로 콘텐츠를 수출하고 있는 BBC의 Knowledge 채널은 국내 과학전문채널의 활성화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가 채택되었다.

- 1) 영국 'BBC Knowledge'의 모기업인 'BBC'의 공익적 재정 운영 실태는 어떠한가?
- 2) 영국 'BBC Knowledge'의 상업적 재정 운영 실태는 어떠한가?
- 3) 일본 '사이언스'채널의 공익적 재정 운영 실태는 어떠한가?
- 4) 국내 과학전문채널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은 무엇인가?

II. 본론

해외의 경우, 대표적인 과학전문방송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이 중에서 미국은 가장 많은 상업과학채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PBS와 같은 공익방송으로 하여금 과

학전문 프로그램의 편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 1998년부터 공공적 성격의 '사이언스 채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중국 또한 지난 2001년 공영방송인 중국중앙방송국(이하 CCTV) 산하에 과학기술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CCTV-10을 설립해 중국 전역을 권역으로 위성으로 송출하고 있다. 영국 역시 공영방송인 BBC가 과학전문채널인 BBC Knowledge를 설립, 위성을 통해 방송하고 있다.

표 2. 2011년 국가 경쟁력 20위권 일부 주요국의 과학기술방송 설립현황

국가	방송사(설립년도)
스웨덴	Viasat Nature(1994), Kunskapskanalen(2004), TV4 Fakta(2005)
핀란드	YLE Teema(2001)
영국	Discovery Civilization(1999), BBC Four(2002), BBC Knowledge(2007)
미국	Discovery Channel(1985), The History Channel(1995), Animal Planet(1996), National Geographic Channel(1997), Military Channel(1998), Discovery Science(1999)
캐나다	History Television(1997), Documentary(2001)
호주	National Geographic Channel(1997)

출처: [6] 재인용

1. BBC 의 공익적 재정 운영실태

BBC는 모든 연령의 시청자들에게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진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17], 이로 인해 편성시간의 10%를 과학 프로그램에 할당하고 있다. BBC는 과학 프로그램을 필두로 다양한 지식 및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 2011년 한 해 동안 투여된 프로그램 제작비 현황을 보면 이를 더욱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BBC의 수신료 수입 중 비용은 총 35억9,600만 파운드(한화 6조3,980억 원)이 지출됐으며, 이 가운데 콘텐츠 제작 및 구매를 위한 비용은 25억4,900만 파운드(한화 4조5,350억 원)로 수신료 전체 비용 대비 71%를 차

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즉 수신료의 80%는 콘텐츠 및 BBC의 업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고정 인프라 비용에 사용되고 있으며, 6%의 서비스 제공 비용에는 아날로그와 DTT, 위성과 인터넷 수용자들을 위한 서비스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17]. 1년에 약 145파운드(한화 약 258,000원)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안정된 수신료 제도와 징수된 수신료의 대부분을 프로그램 구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현상은 BBC가 오늘날과 같은 고품질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3. 2010/2011 BBC 수신료 부분 비용 현황 단위: 백만파운드

구분	금액	%
콘텐츠 제작 및 구매 비용	2,549	71
건물 및 기술 인프라	308	9
지원과 마케팅 업무	303	8
서비스 제공	202	6
수신료 징수비용 (licence fee collection)	124	3
디지털 전환 지원	80	2
재구조화	30	1
합계	3,596	100

출처 : [16]

2. BBC Knowledge의 공익적 재정 운영실태

BBC는 수신료 수입 외에 기타 수입을 통해 재원을 다각화하고 있는데, 주로 프로그램 판매 수익 및 채널 송출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 BBC의 유일한 상업적 그룹인 'BBC Worldwide'가 운영하고 있는 'BBC Knowledge' 채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BBC Knowledge'는 BBC가 96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위성 채널로 전 세계 시청자를 타깃으로 하고 있는데,³⁾ BBC Worldwide가 상업적 이익을 추구

3) BBC Worldwide는 2007년의 첫 편성을 필두로 31개의 글로벌 채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100개가 넘는 나라의 시청자들에게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다. 미국의 케이블 채널인 BBC America는 해마다 36.8%의 성장율을 보이며 상위 25-54위의 시청률을 보이고 있다. 인

하는 그룹이라는 점에서 과학전문방송의 공익성과 상업성을 절충하는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 'BBC Worldwide'는 BBC의 수신료를 상쇄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BBC의 가장 중요한 상업적 이익은 'BBC Worldwide'와 여기에서 제작되는 프로그램 판매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BBC Worldwide'는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저작권에 대한 투자를 하고, 이를 통해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판매하고 있다. 선두적인 수출업자로서 'BBC Worldwide'는 국제적인 쇼케이스를 하고 있으며, BBC의 5번째 공적 목표인 '영국을 세계로, 세계를 영국으로!! Bringing the UK to the World and the World to the UK'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16].

이와 같은 지원은 BBC의 매출구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BBC는 수신료 수입 외에 기타 수입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수입은 BBC Worldwide의 의 사업 분야에서 산출된 금액이다. 전체 수입인 49억9,300만 파운드(한화 약 8조 9,000억 원)에서 14억8,000만 파운드(한화 약 2조 6,000억 원)로 BBC의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BBC 매출액의 또 다른 부분을 구성하는 'BBC Worldwide'의 매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BBC Knowledge' 채널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아래의 [표 6]과 같다.

도에서는 BBC Entertainment에 런칭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와 이탈리아, 그 밖의 국가에서는 BBC Knowledge로 송출되고 있다[17].

표 4. BBC Knowledge 송출 현황

국가	플랫폼
Korea	CJ HelloVision(channel428)/GS Gangnam (Channel 253)/Tbroad (Channel 112)/Science TV
Hong Kong	now TV (channel 220) / Hong Kong CABLE TV (channel 49)
Indonesia	Indovision (channel 200)
Singapore	StarHub TV (channel 407)
Malaysia	HyppTV (channel 141)
Taiwan	Chung Hwa MOD (channel 092)

표 5. BBC 수입 및 비용 현황*

항목	2011	2010
수신료 수입	3,513	3,447
기타 수입	1,480	1,343
수입 합계	4,993	4,790
운영 비용**	4,789	4,541
특수수당수입***	(250)	(334)
재구조 비용	(63)	(62)
운영비용 합계	4,602	4,269

단위 : 백만파운드

출처 : [16]

* 2011년 3월 기준

** 재구조 비용 및 특수 연금 수입을 제외한 금액

*** 특수수당수입은 2010년과 2011년에 대대적으로 시행된 조기 은퇴와 정리해고 등으로 인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인건비 수입을 말함

표 6. BBC Knowledge 대표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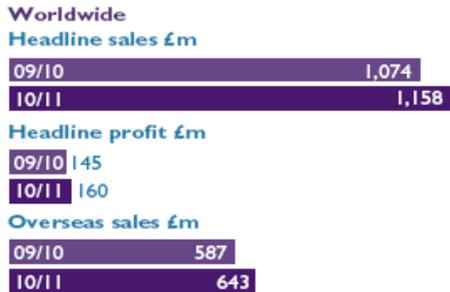
방영 프로그램	내용	분야
Arctic with Bruce Parry	과거 오지나 황무지를 개척하는데 실패했거나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탐험
Amazon	안데스의 페루산맥에서 시작되어 광활한 대서양 해안까지 뻗어가는 아마존의 생생한 여행기	여행
Bionic Vet	전국의 수많은 애완동물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 새로운 외과 기술을 소개	생명
Exploring Malaysia	말레이시아의 유명배우가 숲에서 사막에 이르기까지 말레이시아 곳곳을 소개	여행
Ganges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강으로 알려진 갠지즈 강을 여행하며 인도인의 일상을 성찰	여행
Heroes of World War II	세계2차 대전의 알려지지 않은 영웅들을 소개	전쟁
How to Build	핵심수합, 정보 제트기부터 소방 로봇과 스틸 스기의 제작에 대한 정보 소개	엔지니어링
Jimmy's Food Factory	음식에 대한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과 과학	음식
America's Medicated Kids	증가하는 어린이의 심적 병리상태를 분석	심리
Planet Earth	지구의 다양한 지리와 생물 소개	탐험
South Pacific	신기한 바다 탐험 보고서	탐험
Top Gear USA	영국에서 다양한 상을 휩쓸면서 친숙해진 Top Gear와 미국의 Top Gear가 펼치는 경기 최신 자동차 테스트, 자동차 성능비교	기술
True Stories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침	영화
Undercover Boss Australia	고용인으로 가장한 사장님들의 직장 체험기	직업

* (2012년 2월~4월 편성 예상 기준)

출처:[17]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은 자동차 관련 종합 매거진 쇼 프로그램으로 영국 아카데미(BAFTA) 상을 수상한 바 있는 'Top Gear'다. 탑 기어는 최신 자동차 테스트, 자동차 성능을 비교하고 있는데, 볼보, 포르세, 재규어, 페라리, BMW, 아우디, 람보르기니 등 세계 명차들이 세계 최고의 자동차 전문가이자 비평가들에게 직접적이고 사실적인 성능 비교를 당하면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탑 기어는 BBC Knowledge의 대표 프로그램이자 장수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의 자동차 팬들에게 우호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저녁 프라임 시간대에 할아버지와 손자가 같이 보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은지 오래 되었다.

이와 같이 'BBC Knowledge'는 항상 시청자에게 그들이 선호하는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3D로 제작되는 'Walking with Dinosaurs'를 포함해서 영화 상영까지 발전된 세 개의 단편 자연 역사 필름과 전자 게임으로까지 발전한, 생중계로 제작되는 Doctor who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변화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16].



출처 : [16]

그림 3. BBC Worldwide 2011년 매출액 현황

그리고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이들 프로그램은 작년에 3억800만 파운드(Worldwide 전체 매출액의 12.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화 약 5,480억 원)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듯이 'BBC Worldwide'의 매출액⁴⁾은 약 11억5천8백만 파운드(한화 약 2조600억 원)이고, 영업이익률은 약 1억6,000만 파운드(한화 약

2,840억 원)에 이르러 작년 대비 각각 7.8%와 10.3%가 증가된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해외부분 매출은 6억4,300만 파운드(한화 약 1조1,440억 원)로 전체 매출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해마다 9.6%씩 증가하고 있다.

'BBC Worldwide'는 국제적으로 매출액을 증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 프로그램 사업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미국 버전의 'Strictly Come Dancing'은 ABC 네트웍에서 제작된 바 있고,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시즌 12까지 나왔다. 이 시리즈는 프랜차이즈 프로그램 역사상 가장 많은 시청률을 보이는 시리즈가 되었다. 탑기어 역시 미국 버전으로 제작되었고, 'The Week the Women Went'도 인도와 프랑스 버전으로 제작됐다. LA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제작팀은 sci-fi 드라마 시리즈인 'Torchwood'의 새로운 시리즈를 제작할 뿐만 아니라 포맷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16].

'BBC Worldwide'의 이와 같은 전략들은 꾸준히 지속될 것이며, 가장 우선적으로는 디지털과 글로벌 매출을 신장시키고, TV 채널과 제작 활동을 확대할 것이다. 그리고 주요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와 좀 더 가까워지는 기회를 조성할 것이다. 그리고 올해에는 무엇보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이 채널이 좀 더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16].

이와 같이 BBC Worldwide는 프로그램과 포맷 판매, 그리고 DVD 제작물 판매를 통해 높은 이윤을 얻었으며,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BBC.com(BBC.co.uk의 글로벌 버전)을 마련하였고, 2007년 런칭한 이후 광고를 수익을 기반으로 미국에서는 손익분기점을 돌파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는 2010년 7월 런칭되었고, 아시아에서는 비즈니스 사용자들을 위해 2011년 3월에 런칭됐다. 또한 BBC Worldwide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사용자들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모바일 게임과 애플리케이션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16].

3. 일본 '사이언스 채널'의 공익적 재정 운영 사례

일본은 지난 1998년부터 과학전문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 과학기술진흥사업단(JST, www.jst.go.jp)이

4) 방송사업 부분의 매출액을 말함. 기타 수익은 포함되지 않음.

과학기술 이해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 운영한 이래 활발한 운영활동을 해왔다. JST의 과학기술이해증진사업은 크게 1) 과학기술 교과학습 지원 2) 지역과학기술 이해증진 활동 추진 3) 과학기술 정보 확산 4) 일본과학 미래관 운영 등 4대사업으로 분류된다. 사이언스 채널은 이 중 세 번째 사업인 과학기술 정보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JST는 매스미디어의 중요성을 인식해 그동안 2천 편 이상의 과학프로그램을 제작해 케이블 방송이나 위성 방송에 영상콘텐츠를 보급하고 있다. 과학방송국을 직접 운영하지는 않고 다양한 과학영상물이나 콘텐츠를 제작 확보해 보급하는 콘텐츠 제공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사이언스채널(sc-smn.jst.go.jp)은 CS 위성방송, SO, 인터넷을 통해 과학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추가 시청료 부담이 없는 공공방송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998년 10월부터 전송을 시작한 SO는 전국 30개(가입자 수 46만)이지만, 수신 설비를 갖춘 케이블TV 방송국은 140개가 되어 안정적인 플랫폼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CS위성방송은 SKYperfecTV가 운영하고 있고, BS는 2000년 12월에 서비스를 개시하여 본격적인 위성방송 보급이 진행되 나 있다. JST는 각 지역 및 단체들이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그들이 만든 프로그램은 CS TV를 통해 보급하는 창구역할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재단제작 87%, 외부단체 제공 6.5%, 해외로부터 방영권 구입 6.2%).

한편, JST는 사업비 1094억엔(한화 1조940억엔), 정규직원 475명이라는 규모에서부터 보여지듯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일본 JST의 사업은 광범하고도 막대하다. JST의 모태는 1957년 창립된 일본과학기술정보센터(JICST)와 1961년 창립된 신기술사업단(JRDC)이다. 이 두 기구는 1996년 일본과학기술진흥사업단(Japan Science and Technology Corporation)이라는 기구로 통합되었다가 2003년 독립행정법인의 위상을 획득하면서 과학기술진흥기구(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로 바뀐다.

JST는 2004년 수입예산 1,093억 엔(한화 약 1조5,583억엔) 중 967억6천만 엔(한화 약 1조 3,795억엔)을 정부 기금에서 지원받고 있다. 예산지출구조(추정치)를 보면

신기술창출을 위한 연구개발에 573억엔, 신기술의 기업화에 148억엔, 과학기술정보촉진에 139억엔, 연구교류에 82억엔을 각각 사용했다. 이 예산 중 약 63억엔(한화 약 898억엔)(2005년 기준)을 그들이 '과학기술이해증진(PUST)'이라고 부르는 과학문화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사업 예산 중 약 5.7%를 과학문화예산에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의 경우는 전술한 바와 같이 사이언스TV 육성을 위해 40억원~50억원 정도가 이 소요되고 교과부의 과학기술문화사업 관련 2009년 전체 예산으로 책정한 금액은 28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5].

III.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활성화 방안

과학 장르의 프로그램이야말로 문화 할인율이 낮고 세계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보편적인 콘텐츠다. 'BBC Knowledge'는 이와 같은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과학 관련 프로그램과 채널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YTN사이언스'의 재정과 제작 환경에 비추어 본다면 'BBC Knowledge'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내 과학채널의 현황과 활성화 전략을 살펴보기 위해 YTN 사이언스 채널과 해외 유사 과학채널의 재정에 초점을 두고 비교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BC Knowledge'는 모기업인 BBC의 안정적인 수신료 수입과 함께 해외 글로벌 채널로서 프로그램과 채널 런칭을 통해 제작비를 충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고 수준으로 제작된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게임, 온라인, 모바일 등 연관산업 분야로 부가가치를 확장하고 있다. 각종 저작권 수입은 물론 광고 수익, 수신료 수익 등 재원의 다양성을 토대로 공익적인 과학전문 프로그램을 수준높게 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과학기술진흥사업단(JST)이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언스 채널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0년부터 추가 시청료의 부담이 없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자에 대한 무료 서비스가 가능한 것은 공공방송의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는 '과학기술이해증진(PUST)'이라는 별도의 사업기금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과학전문채널이 한정된 예산으로 질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정적 지원이 안전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YTN사이언스'에 대한 교과부 지원과 대용자금의 규모로는 콘텐츠 제작은 물론이고 운영조차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원금의 규모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일본의 사이언스 채널처럼 민간재단이나 대기업, 각 지역 단체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격려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YTN사이언스'의 사업자 성격으로 인해 이들 주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교과부가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물론 전체 예산의 규모와 사업의 중요성, 국회의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 등으로 이와 같은 방안이 손쉽게 실현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예산 증액을 위한 구체적인 객관적인 명분을 마련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박성철, 이화행은 현재와 같은 교과부의 5년 단위 사업자 재공모 방식의 문제점과 교과부 재정 지원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으며, 이를 꾸준히 여론화하여 과학의 중요성과 과학전문방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있다[18].⁵⁾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번째 방안으로는 채널의 다원화 전략이 요구된다. 현재 'YTN사이언스'는 'BBC Knowledge'와 같이 수신료 재원을 통해 다각적인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므로 한정된 재원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채널 스스로 제작비를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부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공공기관의 제작비 지원에 응모할 수 없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방통위나 문화부 등이 공모하는 제작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

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에 대한 공공기관의 재원지급의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지원의 규모와 수준을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대상이 BBC Knowledge와 사이언스 채널이라는 점에서 이들 채널이 가지고 있는 공적 성격으로 인해 재원구조와 매출구조가 단순하다는 근본적인 연구의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즉 공익적 재원 구조로 이루어지는 연구대상 채널의 공통점으로 인해 매출액이나 재원구조의 근거를 기준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좀 더 깊이 있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들 기준 외에도 프로그램 단품 수출입 실태와 채널 런칭에 따른 국가별 수신료 수입, 구체적인 제작비 운영 실태 등이 조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방송 콘텐츠의 해외진출과 글로벌화 경향이 두드러지는 시점에서[19] 이와 같은 연구는 향후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적 재원의 출현 근거와 정부의 다양한 지원 실태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조사되어야 하며, 이들의 지원과 공적재원이 프로그램 제작에 어떤 형태로 반영되고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후속 연구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1] The Royal Society of London(1985),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 [2] 유세경, "사이언스TV의 공익성 제고를 통한 채널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과학창의재단 연구보고서, 2011.
- [3] 이원근, "과학위성방송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문화재단 연구보고서, 2001.
- [4] 박은희, 심미선, 황성연, 윤석중, "과학전문방송(사이언스TV)의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연구보고서, 2009.
- [5]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기술전문분야 방송채널사

5) 박성철, 한국전파통신진흥원(KCA) 책임연구원; 이화행, 동명대 교수

업자 선정 공모 사업제안요구서(RFP), 2009. 11.

[6]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 http://www.kofac.re.kr/busi1/jsp/NormalCtrl.jsp?ACT_CD=IntroScienceTVVm&MENU_SEQ=162.

[7] 김동규, “한국 신문의 과학기술 보도 분석”, 한국언론학보, 제42-2호, pp.5-43, 1997.

[8] 김찬석, “과학기술 연구성과의 뉴스프레임 연구”, 한국광고홍보학보, 제10권, 제2호, pp.98-123, 2008.

[9] 권상희, “과학뉴스 연구: 생명공학 뉴스의 장기적인 보도경향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제32호, pp.7-48, 2006.

[10] 김수정, 조은희, “생명과학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뉴스 프레임 비교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47권, 제2호, pp.109-139, 2005.

[11] 최영재, “사건 뉴스 프레임의 뒷에 걸린 황우석 보도”, 원용진, 전규찬 편, 신화의 추락, 국익의 유명, 한나래, 2006.

[12] 권상희, 김위근, 박성철, *뉴스의 미래*, 이담북스, 2009.

[13] 김영옥, 박성철, “과학보도와 과학저널리즘”, 한국언론재단, 2007.

[14] 교육과학기술부, 2009년도 과학기술문화사업추진계획(안), 2009. 1. 28.

[15] 변재규, 과학기술전문방송에 대한 정책대안 탐색, 기술경영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문, 2009.

[16] BBC.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10/2011, 2011.<http://www.bbc.co.uk/annualreport/download>

[17] BBC Knowledge 홈페이지 available <http://www.bbcknowledge.com/asia/programmes>

[18] 박성철, 이화행, 과학채널의 성과와 전망, 한국언론학회 세미나 토론문, 2012. 2. 24

[19] 김대호. “한국 미디어 기업의 글로벌 위상과 미래 전략”,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9호, pp.174-186. 2011.

저 자 소 개

김희경(Hee-Kyung Kim)

정회원



- 1993년 2월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문학사)
- 1997년 8월 :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정치학석사)
- 2004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언론학박사)

- 2005년 6월 ~ 2011년 3월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연구위원
 - 2011년 3월 ~ 현재 : (사)미디어전략연구소 연구실장, 숙명여대, 한국예술종합학교 시간강사
- <관심분야> : 방송정책 및 제도, 미디어산업, 융합서비스